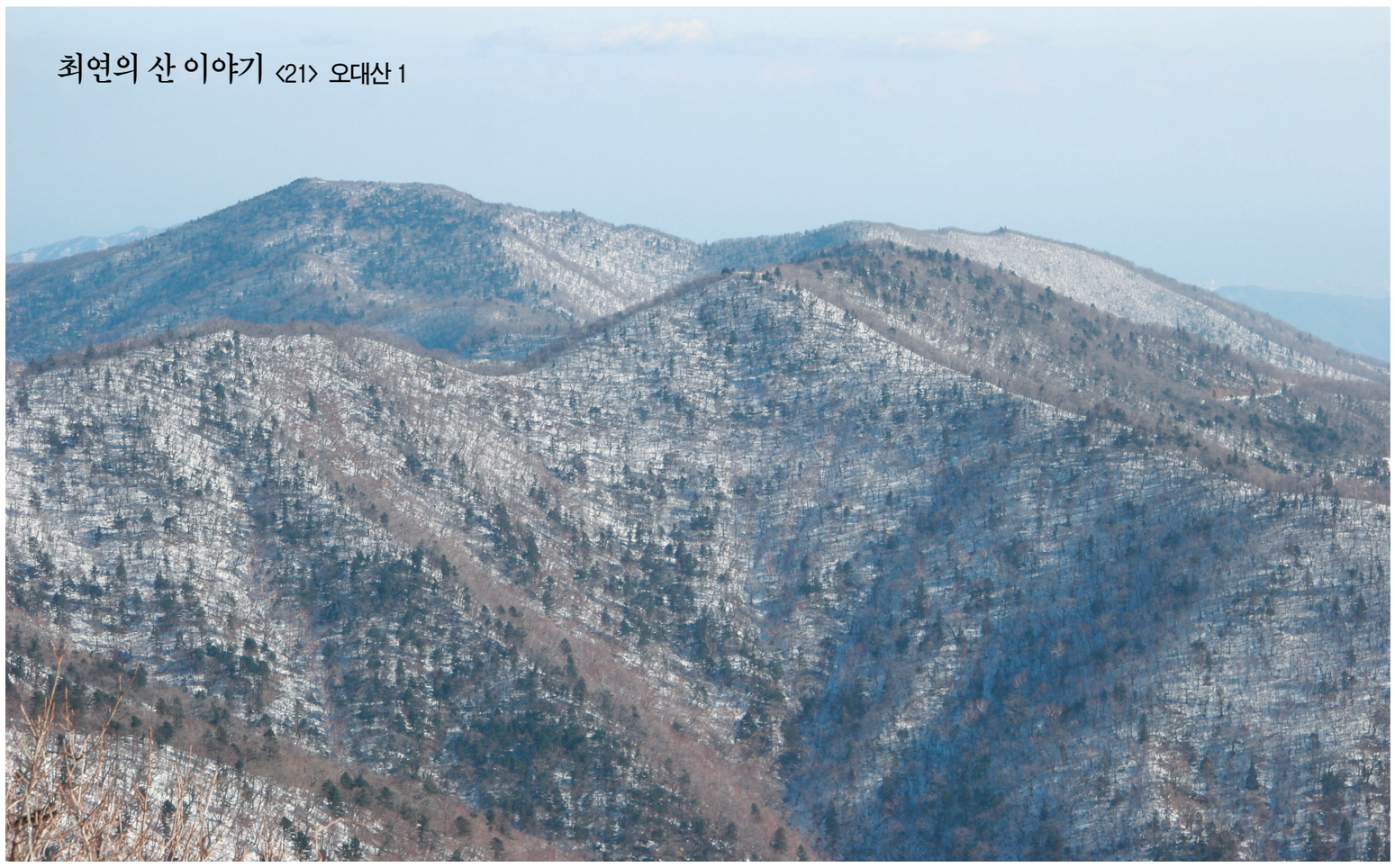
최연의 산 이야기 <21> 오대산 1



비로봉에서 바라본 상왕봉.

다섯 봉우리에 부처님 세상이 펼쳐졌구나

백두산(白頭山)에서 시작하여 남향하던 백두대간이 태백산(太白山)에서 서남진(西南進)하면서 산줄기의 높이가 현격히 낮아지는데, 그 태백산에 이르기 전에 백두대간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산이 오대산(五臺山)이다. 백두대간에서 벗어난 산줄기는 서향하면서 오대산, 계방산, 흥정산, 태기산 등 1200m가 넘는 산군을 일구어 놓았다.

오대산은 설악산(雪嶽山)처럼 화려하지는 않다. 높이 1563m에 산 둘레가 강원도 명주군, 평창군, 홍천군에 걸쳐 사방으로 50여리에 이르는 웅장한 산인데도 수려한 기암괴석이나 유명한 폭포가 하나도 없다. 설악산이 골산(骨山)이라서 한껏 치장한 여인과 같다면, 오대산은 육산(肉山)으로 화장하지 않은 수수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여인과 같다. 그래서 오대산 봉우리들은 설악산에 비해 부드럽고 유순하면서도 생동감이 넘친다.

당나라에 유학 갔던 자장율사가 중국 명주의 오대산 아래 태화지(太和池) 7일 동안 기도하고 문수보살을 친견한 후 부처님 진신사리를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다.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만나기 위해 다시 기도를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태백산 정암사로 떠났다.

자장율사가 다녀간 100여년 후에 정신왕(淨神王)의 두 아들 보천과 효명이 이곳에 들어와, 보천은 지금의 상원사 아래에 보천암을 짓고, 효명은 건너편에 초막을 짓고 은둔하며 수행에만 전념하면서 오대산 다섯 봉우리를 차례로 참례하였다. 신라시대에 '정신'이라는 왕은 없었는데 일연 스님은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 정신왕이 신문왕일 것이라고 했다.

동쪽의 만월산(滿月山)에 오르니 1만의 관음보살(觀音菩薩)이, 남쪽의 기린산(麒麟山)에서는 1만의 지장보살(地藏菩薩)이, 서쪽 장령산(長嶺山)에서는 무량수불(無量壽佛)과 1만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이, 북쪽 상왕산(象王山)에서는 석가여래(釋迦如來)와 5백 아라한(阿羅漢)이, 중앙의 풍노산(風盧山)에서는 비로자나불(毘盧姿那佛)과 1만의 문수보살(文殊菩薩)이 그들에게 모습을 나타냈다고 한다. 이 신령스러운 다섯 봉우리를 각기 동대, 서대, 남대, 북대, 중대라고 이르는데 '오대(五臺)'라는 이름이 여기서 연유했다. 다섯 봉우리가 지금의 동대산, 두로봉, 호령봉, 상왕봉, 비로봉을 말한다.

정신왕이 세상을 떠나자 보천태자를 왕으로 추대하려 하였으나 효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오대산에 홀로남아 수행에만 전념하다가 열반에 들게 된다. 보천은 입적하기 전에 후세 사람들이 오대산에서 해야 할 일들을 기록으로 남겼다.

오대산은 백두산에서 뻗어 내린 중요한 맥이다.
동대, 서대, 남대, 중대, 북대에 암자를 짓고 거기에 머무시는 불보살들을 잘 모셔라.
각 대마다 다섯 사람씩 살게 하여 정성을 다해 경을 외고 기도를 하며 수행에 힘쓰도록 하라. 그러면 왕이 장수하고 백성이 태평하며 신하들이 화목하리라.

이때부터 오대산은 많은 수행자들과 왕족을 비롯한 신도들이 줄지어 참배하는 불교의 성지가 되었다.

불교적 이상향은 불국토(佛國土) 사상으로 표현되는데 불국토 그것은 부처님의 나라이다. 아미타불은 서방에 극락정토(極樂淨土), 비로자나불은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 약사여래는 동방에 정유리세계(淨琉璃世界), 미륵불은 용화세계(龍華世界)라는 불국토로 사바세계를 장엄할 것이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穢土)을 불국토(淨土)로 만들어 보자고 염원하였는데 그 한 예가 오대산 신앙이다. 오대산 신앙을 우리나라에 전한 인물은 중국 오대산(청량산)에서 문수보살의 부촉을 받은 자장이지만 우리나라의 오대산을 신앙의 근원으로 만든 것은 보천과 효명이고 특히 끝까지 남아 수행한 보천의 힘입은 바가 크다.

보천의 유훈을 받들어 후학들은 동대 관음암, 서대 수정암, 남대 지장암, 북대 미륵암, 중대 사자암을 지어 청색의 관음보살, 백색의 무량수불, 적색의 지장보살, 흑색의 석가모니불, 황색의 비로자나불을 각각 모시고 원통사(圓通社), 수정사(水精社), 금강사(金剛社), 백련사(白蓮社), 법륜사(法輪社)의 신행결사(信行結社)를 만들어 낮에는 경(經)을 독송하고 밤에는 예참(禮懺)을 행하였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각 방위(方位)에 따라 색깔이 배정된 것인데, 이때 이미 오행사상(五行思想)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불교사상과 결합되는 한 예이다.

■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새소리 들으며 잠에 드는 아침

울부짖는다고 해야 할까? 피를 토한다고 해야 할까? 두 가지를 합친 소리쯤이나 될까?
우웨엑– 우워억– 우어엉– 우어억–
어둠의 수렁 속으로 더 깊이 빠져 들어가며 윗집 우사에서 소가 운다.

우사 안의 소들은 배가 고프거나 발정이 났거나 새끼와 생이별을 할 때 운다. 배가 고플 때의 소리는 붉다. 발정이 났을 때의 소리는 더 붉고, 오늘처럼 새끼와 생이별을 했을 때는 더더욱 붉다. 깊은 밤, 새끼를 찾는 어미 소의 울음은 내려앉은 어둠을 뒤흔들며 산과 산 사이의 세상을 검붉은 피로 출렁이게 한다. 윗집으로 뛰어올라가 주인의 멱살을 움켜쥐고 싶은 마음이 요동친다.

"소음은 규제 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축사 신축은 400㎡까진 신고만으로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군청 직원의 얘기로는 산속이라 해도 농지에 짓는 축사는 농사를 짓는 것으로 해석해서 규제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면서 피해를 입는 농민들을 위해 농지법을 개정하여 그나마 있던 농지위원들의 동의 절차까지 없앴다고 한다. 축사를 지을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것이었다. 거기다 기술센터에서 축사 건립비용의 50%를 지원해준다 하니 더 할 말이 없었다. 내가 낸 세금이 나를 괴롭히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니….

"축사를 지을 땐 주민 동의서 첨부를 강제하는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웃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건 상위법에 어긋나서, 조례를 제정한다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별다른 제재사항이 없었다. 땅값 하락 등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선 민사소송 등의 방법이 있고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 등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 밖의 방법으론 파리며 악취며 식수오염에 관한 우려 사항 등을 가지고 끝없이 민원을 넣는 수밖에는 없었다.

나뭇가지 잎 뒤에 숨은
초승달이 조는 틈을 타서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푸르스름한 빛을 흔들며
새들이 운다

어찌해야 할까? 윗집과의 싸움에 매달리다보면 나의 생활도 무너질 것이 분명하다. 글쓰기도 집중하지 못할 것이고 윗집 사람(그와 함께 자라난, 이 마을과 아랫마을 사람들까지 합친)과의 긴장 상태 속에서 언제 끝날지 모를 싸움을 이어가야할 것이다.

산속에 축사가 들어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시인이라고 하는 놈이 이렇듯 버젓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 자질이 모자람을 인정하고 글쓰기를 그만두어야 하는 걸까? 이때를 기회삼아 이곳을 떠날까? 축사가 빤히 보이는 집과 땅을 누가 살 것인가? 판다고 해도 반 값 정도나 받으면 많이 받는 것인데, 그 돈으로 어딜 가서 살 만한 터를 구할 것인가? 윗집 땅과의 경계선 아래로 내 집까지 펼쳐진 밭에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든다면 달리 무슨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훠이 허이 훠이 허

이런 저런 생각 끝에 문득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창문으로 시선을 돌리니 어슴프레, 새벽이 눈을 뜬다. 나뭇가지 잎 뒤에 숨은 초승달이 조는 틈을 타서,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푸르스름한 빛을 흔들며 새들이 운다.

훠이 허 훠이 허 씨씨 씨버럴 씨버럴 씨이씨 히오리 허리 히어 히어리 히어

산과 산 사이, 산과 하늘 사이를 꽉 채우며 '둥둥' 소리의 세상이 빛으로 떠오른다.

마루 밑에서 잠에 들은 개도 깨어나지 않았다. 아내도 아들도 일어나지 않았다. 숲은 어두운데 하늘은 밝다.

우웨에 우워어엉 우워어 워어어엉–. 그만 멈췄는가 싶었던 소 울음소리가 다시 이어진다.

다행일까? 새소리는 붉게 물들지 않았다. 새소리가 퍼져나가는 만큼 붉은 빛이 점점 묽어졌다. 조금만 더 밝아진다면 새소리가 소 울음소리를 지울 기세다. 서둘러 잠자리에 들면서 나는 생각한다. 집 위에 숲을 만들며 좀 더 살아보자. 지금까진 괜찮다.

■ 유승도 (시인)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 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kukak.com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